

# 한효주, 웹툰 속 남자와 사랑에 빠지다



## 현실과 가상 세계의 만남

사람에 의해 창조된 웹툰 세계가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기 절정의 웹툰 'W', 그리고 그 웹툰을 창조한 현실.

오는 20일 처음 방송하는 MBC TV 수목드라마 'W'는 두 세계를 오가게 된 오연주(한효주 분), 그리고 그 웹툰의 주인공 강철(이종석)이 서로를 만나 존재 이유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과거 드라마나 영화 속 시공간 이동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것이었다면 'W'는 2016년 동시간대 존재하는 현실과 웹툰을 오가는 상황을 그린다.

지난해 '그녀는 예뻐다'를 연출했던 정대운 MBC PD가 연출을, tvN '나인'(2013), '인연환후의 남자'(2012)를 통해 시공간 이동으로 인해 벌어지는 이야기를 맛깔나게 그려냈던 송재정 작가가 대본을 맡았다.

웹툰 'W'의 작가인 오성무(김의성)는 자신이 만들어낸 'W'의 세계와 강철이 자신의 의지를 벗어나는 것을 느낀다. 웹툰 세계를 다녀온 그는 자신이 '괴물을 만들었다'며 웹툰 속 강철을 죽이려 한다.

아버지를 찾으려다 미친가자로 웹툰 세계에 가게 된 연주는 죽을 위기에 처한 철을 만나 그를 살려낸다. 드라마는 로맨스와 스릴러, 미스터리, 호러 등 다양한 장르를 오간다.

정 PD는 18일 서울 마포구 삼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본 적

## 로맨스·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 표현

### MBC 수목드라마 'W' 내일 첫 방송

이 없는 드라마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비주류적인 측면과 주인공의 감정선 두 가지를 끝까지 잘 살려서 재밌는 드라마를 만들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주인공 강철 역을 맡은 이종석은 "대본을 본 배우라면 누구라도 하려고 했을 만큼 재밌는 대본이었다. 두 번 만나기는 어려울 만큼 좋은 대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해 작품에 대한 자신감을 비쳤다.

미남을 설명할 때 쓰는 '만화를 찢고 나온 남자'(만찢남)를 연기하게 된 그는 "강철 입장에서 웹툰 속 세계가 현실이라서 특별히 현실과 웹툰 속을 나눠서 생각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엄청난 부자에 멋진 설정은 다 가지고 있는 만큼 외모적으로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말로 기대를 당부했다.

그는 극 중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로 시작해 컴퓨터 공학도로 진로를 바꿔 성공한 '슈퍼재벌'로 분한다. 그는 "의상 등 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W' 출연 결정 전 우빈이(김우빈)가 '함부로 애듯하게' 카메오 출연을 제안해서 하려고 했다"고

달어놓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공교롭게도 'W'가 '함부로 애듯하게'와 같은 시간대에 방송하게 되면서 출연은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2010년 '동이' 이후 6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하는 한효주는 "드라마를 다시 하게 된다면 정말 드라마틱한 드라마를 하고 싶었는데 대본을 보는 순간 '꿈이 이뤄졌다', '이런 드라마 처음'이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여러 차례 "드라마가 오랜만"이라고 말한 그는 "첫 촬영 때는 많이 헤맸다", "많이 떨어져 며칠째 잠도 못 잤다"는 말로 부담을 표현했지만 이미 드라마의 절반인 8회 정도까지 촬영을 한 덕분인지 표정은 더없이 편안해 보였다.

"스킨십하는 촬영이 많은데, 하다 보니 좀 무뎠던 것 같다"는 두 살 연하의 배우 이종석(27)의 장난기 섞인 말에는 "무뎠어요, 벌써?"라고 발끈하는 모습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다. 한효주는 "어려 보이라고 앞머리를 만들었다"고 장난기가 어린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한효주는 "드라마 속의 강철은 완벽한 남자인데, 이종석씨도 그에 못지않게 어느 하나 부족할 것 없이 너무나 매력적"이라며 "제가 했던 드라마 중에 키스신이 제일 많은 것 같다. 그중에서 역대급 키스신이 나올 것 같다"며 기대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 달인 is back

### 김병만 인터넷 생방송...익스트림 코미디 도전

'개그콘서트' '정글의 법칙'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온 개그맨 김병만이 자신의 도전을 인터넷 생방송으로 공개한다.

김병만의 소속사 SM C&C는 그가 예능인 최초로 네이버 V LIVE(V 앱) 채널 '병만TV'를 18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병만TV'는 김병만과 SM C&C가 기획했고 tvN이 제작파트너로 참여했다. 여러 분야에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왔던 김병만에게 이 방송은 '글로벌 익스트림 코미디'를 지향한다.

이날 오후 1시에 진행되는 '병만TV' 첫 생방송은 물속에서 진행된다. 김병만은 숨 오래 참기, 수중 립싱크, 잠수 상태로 책 읽기 등 '극한의' 개인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생방송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내용을 따로 촬영, 편집한 '마스터 콘텐츠'도 8월 중 네이버 TV캐스트와 V앱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연합뉴스

## 현빈·유지태 영화 '꾼'으로 연기호흡

### 배성우·박성웅·최문덕 등 캐스팅...내년 개봉 예정

희대의 사기꾼을 잡으려고 '사기꾼 잡는' 사기꾼과 엘리트 검사가 벌이는 한판 사기극을 다룬 영화 '꾼'이 현빈, 유지태, 박성웅, 배성우, 최문덕 등의 캐스팅을 마무리했다.

현빈은 사기꾼만 골라 속이는 지능형 사기꾼 '황지성' 역을, 유지태는 희대의 사기꾼을 잡으려고 '황지성'과 손을 잡는 대검찰청 특수부 '박희수' 검사 역을 각각 맡았다.

황지성에 속아 박희수 검사에게 잡히고서 어쩔 수 없이 박 검사를 돕게 되는 '고석동' 역은 배성우에게 돌아갔다.

또 황지성과 박희수 검사의 반대편에서 사기꾼의 눈과 귀가 되는 '곽승건' 역에는 박성웅, 사기꾼을 대신해 감옥에 가게 되는 '이강석' 역에는 최문덕이 캐스팅됐다.

'왕의 남자'의 조연출로 시작한 '라디오스타', '남은 먼 곳에' 등 이준익 감독의 작품에 참여한 장창원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하반기에 크랭크인에 들어가 내년 개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육성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25 TV 블로그 꿈지락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	00 다큐멘터리 3일(재)	00 월화특별기획 (문스타)(재)	00 닥터 365 05 특집 다큐멘터리 (운명)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문화사색(재)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재) 55 토크 콘서트 화통(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감성애니 하루	00 1대100(재)	05 내꺼야 풀록 30 꾸러기 식사교실	55 TV블로그 꿈지락
2	00 2016 리우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00 KBS 뉴스타임 1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다시보는 대한민국 올림픽 명승부)	00 2016 리우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50 텔레존터	00 리우 2016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3	00 특집다큐 분쟁의 바다 남중국해 55 튜튼생활제조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특? 특! 키즈스쿨 55 아빠 어릴 적엔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집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전문목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광주유니버시티 성공개최 주년 특집 (Thank U, 함께 미래로)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스타!킹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뷰티풀 마인드)	00 월화특별기획 (문스타)	00 월화드라마 (닥터스)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리우 올림픽 기획 우리동네 예체능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20 해외걸작다큐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10:30 한국기행(재)	15:00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05:30 건강안아침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세게사 시간여행	<신내마을 사람들>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프랑스와인기행-1부 부르고뉴)	<연근 사태핀과 청국장 찜>	15:30 피터레빗	20:50 세계테마기행
06:10 EBS 특별기획 통찰(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40 꼬마기사 마이크(재)	<하늘 길을 오르다, K2 2부 K2 여정의 시작, 아스콜리>
07:00 레이디 비그	12:00 EBS 정오 뉴스	15:50 보로로와 노래해	21:30 한국기행
07:30 로보카 폴리	12:10 시대공간(재)	16:00 코코몽3	<개국따라 여름사랑>
07:45 뽀롱뽀롱 보로로	12:40 지식채널e	16:30 코코코 다크(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8:00 뽀롱뽀롱 유치원1~3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16:45 뽀롱뽀롱 유치원1~3(재)	<불멸의 마야 2부 260일 달력, 출간>
08:45 코코코 다크	13:35 뷰티풀 코리아 (고대인이 남긴 수수께끼, 고인돌)	17:30 뽀롱뽀롱 보로로	22: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9:00 코코몽3	13:40 즐겨온 수학 EBS MATH	17:45 로보카 폴리	<인레호수의 아들들>
09:30 원더볼즈	13:50 원더볼즈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23:35 시대공간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후회하지 않는 부모로 사는 법)	14:00 로보카 폴리	19:00 레이디 비그(재)	24:05 지식채널e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양식장 사람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9일(음 6월 16일 壬寅)

<p><b>子</b></p> <p>48년생 애매하다면 가만히 놔두는 것이 유리하다. 60년생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겨야겠다. 72년생 끝까지 차치하고 정확하게 책임을 짚어야 할 때가 되었다. 84년생 현재 감각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74, 16</p>	<p><b>午</b></p> <p>42년생 목적 달성은 하겠지만 실효성이 약해질 수도 있느니라. 54년생 느낌으로 판단하기는 실수하리라. 66년생 예상 밖이어서 대단히 실망하는 판도다. 78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의 방책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1, 30</p>
<p><b>丑</b></p> <p>49년생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별도로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느니라. 61년생 끈질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73년생 객관성을 확보하고 중용의 입장에 서는 것이 맞다. 85년생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행하라. 행운의 숫자 : 65, 59</p>	<p><b>未</b></p> <p>43년생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55년생 좋은 말은 원래 듣기에 거북한 법이다. 67년생 인식한 예감고 실제 사실을 엄격히 구분하라. 79년생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수순에 와 있다. 행운의 숫자 : 02, 71</p>
<p><b>寅</b></p> <p>50년생 과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시급한 때이다. 62년생 깊은 의미가 상징적으로 함축되어 있느니라. 74년생 거북이 등에서 털을 뜯으려는 격이다. 86년생 해악이 예상되면 깔끔하게 제거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8, 28</p>	<p><b>申</b></p> <p>44년생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야만 제대로 되어 가리라. 56년생 생 스스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68년생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함이 손리이다. 80년생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7, 18</p>
<p><b>卯</b></p> <p>51년생 틀리지 않게 잘 보고 조처하라. 63년생 깊은 거칠더라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느니라. 75년생 모든 일을 차치하고 황급히 서둘러야 할 때다. 87년생 탐탁스럽지 않더라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순단하다. 행운의 숫자 : 50, 15</p>	<p><b>酉</b></p> <p>45년생 지리멸렬한 소강상태의 기간을 지나서 활성화되리라. 57년생 위험 부담을 안을 이유는 없다. 69년생 노후 되었다면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81년생 설명 발생한다 하더라도 가볍게 봉합할 가능성이 크다. 행운의 숫자 : 42, 52</p>
<p><b>辰</b></p> <p>40년생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52년생 뒤 돌아 볼 필요가 있다. 64년생 마무리를 잘못하면 후수고만 할 뿐이다. 76년생 과잉 집착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다. 88년생 대수롭지 않은 일이나. 행운의 숫자 : 82, 51</p>	<p><b>戌</b></p> <p>46년생 개별 판단이 요구되는 면모이다. 58년생 유능한 인재를 만나거나 우수한 제품을 접하리라. 70년생 명점을 보완했을 때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82년생 전혀 다른 것이나 따르기로 대처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0, 19</p>
<p><b>巳</b></p> <p>41년생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는 용기가 절실히 요청된다. 53년생 가는 것에 비례해서 자신에게 돌아 올 것이나. 65년생 원칙을 따라. 77년생 과도함은 속히 청산하라. 89년생 잘하면 기회로 만들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54, 29</p>	<p><b>亥</b></p> <p>47년생 기대치와 동떨어져 있어서 결과가 허무할 수도 있다. 59년생 마음먹은 대로 행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71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일이 겹치리라. 83년생 해답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대국이다. 행운의 숫자 : 48, 80</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